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 20일 개막

## 특별새벽기도회 내일부터 시작

# “눈을 들어 아시아를 보라”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가 20일(화)부터 시작된다. 이번 김치신학세미나에는 네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등 아시아권 교계 지도자 27명이 참가한다.

김치신학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강의 및 강사는 개회예배 때 세계선교를 위한 개교회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이종윤 목사의 설교를 비롯 ▶한국교회약사(언더우드 / 연세대 명예교수), ▶성경적 교회갱신원리 및 실제적 적용(이종윤 / 서울교회 목사)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조종남 / 전 서울신대 학장) ▶평신도 전도운동(킨슬러 / 미국 장로교 선교사)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활동(은준관 / 연세대 교수) ▶한국교회와 기도생활(손영준 / MTT원장) ▶전도의 전략과 실제(이광순 / 장신대 교수) ▶한국교회 성장의 사회문화적 배경(이원설 / 한국기독교대학연합회 회장)등이다. 참가자들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영적인 지식을 얻고, 국가별 전략모임(National Strategy Meeting)을 통해 자국복음화를 위한 적용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교회·기독교학교·신학교를 방문하고, 교회학교와 목회자신학세미나 현장, 다락방모임과 새벽기도회에 참가하여 한국

교회의 모습도 보게된다. 김치신학세미나의 목적 중의 또 하나가 타문 화권 목회자들로 하여금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을 알려주고,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성장의 초석이 되어 온 새벽기도회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데에 김치세미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우리교회는 19일(월)부터 29일(목)까지 “눈을 들어 아시아를 보라”는 주제로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와 아시아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기도회는 5시 30분에 시작하며 설교는 이종윤 목사가 한다. 세미나 참가자를 위하여 새벽기도회 모든 순서는 동시통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타문화권 교계지도자를 초청하여 갖는 김치신학세미나의 가장 주된 목적은 참가자들이 자국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히 김치세미나는 우리교회 부설기관인 국제선교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일명 김치/ KIMCHI)가 1996년 세계 로잔위원회의 공인기관이 된 후 세계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제 8차 김치 신학세미나 프로그램

|       | 5. 19.(MON)                                       | 5. 20.(TUE)             | 5. 21.(WED)                       | 5. 22.(THU)              | 5. 23.(FRI)             | 5. 24.(SAT)                                    | 5. 25.(SUN)                   | 5. 26.(MON)                           | 5. 27.(TUE)             | 5. 28.(WED)             |
|-------|---|-------------------------|-----------------------------------|--------------------------|-------------------------|--|-------------------------------|---------------------------------------|-------------------------|-------------------------|
| 5:30  | 아시아를 위한 새벽기도회 Pre - dawn Prayer Meeting for Asian |                         |                                   |                          |                         |  |                               |                                       |                         |                         |
| 6:00  | 개인경건의 시간 Private Quiet Time                       |                         |                                   |                          |                         |  |                               |                                       |                         |                         |
| 7:00  | 아침식사 Breakfast                                    |                         |                                   |                          |                         |  |                               |                                       |                         |                         |
| 8:30  | 자유시간 Free time                                    |                         |                                   |                          |                         |  |                               |                                       |                         |                         |
| 10:00 | 개회예배(Opening Worship)                             |                         |                                   |                          |                         |  |                               |                                       |                         |                         |
|       | 강의 I<br>Lecture I                                 | 강의 II<br>Lecture II     | 강의 III<br>Lecture III             | 강의 IV<br>Lecture IV      | 강의 V<br>Lecture V       | 교회학교 참관<br>Sunday School                       | 강의 VI<br>Lecture VI           | 강의 VII<br>Lecture VII                 | 강의 VIII<br>Lecture VIII |                         |
| 10:50 | 휴식 Intermission                                   |                         |                                   |                          |                         |  |                               |                                       |                         |                         |
| 11:10 | 토의<br>Discussion                                  | 토의<br>Discussion        | 토의<br>Discussion                  | 토의<br>Discussion         | 토의<br>Discussion        | 주일 예배<br>Worship Service                       | 토의<br>Discussion              | 토의<br>Discussion                      | 토의<br>Discussion        |                         |
| 12:00 | 점심식사 Lunch  |                         |                                   |                          |                         |  |                               |                                       |                         |                         |
| 13:00 | 시내 관광<br>City Tour                                | 교회 방문<br>Visit Church   | 기독교대학 방문<br>Visit Christian Univ. | 자유시간<br>Free             | 산상기도<br>Mountain Prayer | 간증<br>Testimony<br><br>찬양예배<br>Evening Worship | 목회자세미나 참관<br>Pastoral Seminar | 신학교 방문<br>Visit Theological Seminary  | 강의 IX<br>Lecture IX     |                         |
| 15:00 |   |                         |                                   |                          |                         |  |                               |                                       |                         |                         |
| 18:00 | 환영만찬 Welcome Dinner                               |                         |                                   |                          |                         |  |                               |                                       |                         |                         |
| 19:00 | 등록<br>Registration                                | 국가별 모임<br>Nat'l Meeting | 자유시간<br>Free Time                 | 다락방 참관<br>Upper RM Study | 자유시간<br>Free Time       | 묵상<br>Meditation                               | 가정초청<br>만찬<br>Home Dinner     | 교계지도자 초청만찬<br>Dinner with Ch. Leaders | 저녁식사<br>Dinner          | 폐회예배<br>Closing Worship |
| 20:30 | 그룹기도 Group Prayer                                 |                         |                                   |                          |                         |  |                               |                                       |                         |                         |
| 21:00 |   |                         |                                   |                          |                         |  |                               |                                       |                         |                         |

\* 5. 29.(THU) - 참석자 출국 Departure

창세기 4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아의 여섯 아들과 나머지 여섯 아들(침이 낳은 네 아들과 라헬이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이 그것입니다. 레아의 여섯 아들 중에는 메시아의 계보에 되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 주가 되어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요셉에 대한 예언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1. 작은 지파인 베나민

요셉에게 비교하면 베나민을 향한 예언은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또 그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도 역시 단 몇 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작은 지파에 비하면 결코 짧은 예언이 아닙니다. 일의 성취는 예언의 분량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베나민은 이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용감한 지파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나민을 이리라고 한 것은 이리의 악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의 용감한 성격, 곧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용감함의 상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베나민 지파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용감하고 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나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블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시68:24, 27).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차하신 성소에 유다의 작은 베나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나민은 작은 지파였지만 그들은 주관자 곧 지도자였습니다.

베나민 족속의 수는 적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 바벨론에 포로로 살면서 유대인 영웅으로 군림했던 모르드개, 그리고 왕비 에스더가 있는데, 베나민 지파의 용기는 특히 사사인 에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습니다.

2. 힘의 약한 면

이리로 표현된 베나민은 그들 지파가 용기와 힘을 가진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와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용기와 힘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힘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잔인함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악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모두 자기의 도덕 기준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매우 불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이 베들레헬에서 침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서 4개월을 나타나지 않자 레위인은 장인을

못 사용하여 이스라엘 형제들로부터 이같은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오용하면 이같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육신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잘못 사용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 힘을 신하게 사용할 때

사도 바울은 베나민 사람이며(롬 11:1, 빌3:5)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초기의

삶은 조상의 종교에 열심이였으며 그리스도인을 광적으로 핍박하는 바리새인으로, 기독교는 지극히 위험한 이단 종파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도 앞장섰고 교회를 부수는데 최선봉에서 칼을 휘두른 사람으로 사울은 힘을 오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 포악한 행위를 중단시키시고 당신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결국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생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이상 세상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전사가 됨으로 그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 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같으나 실상은 온 세계를 지배하며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만물은 그 앞에 꿇어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그리스도 왕국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말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야곱은 열 두 아들에게 똑같은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들 중에 악한 행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노를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죄를 알면서도 그들을 벌하지 않고 그 죄를 교정시키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비열한 행동을 한 아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수 같은 베나민



이종운 목사

“베나민은 물어 뜯는 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십 이 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도다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창 49:27 - 28)

찾아가 애원을 하여 여인을 다시 데려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베나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러 유숙하려 했으나 베나민 사람들을 그들이 거할 곳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브라임에서 온 노인이 그들에게 거할 곳을 주었고 그 밤에 기브아의 비류, 곧 강패들은 그 곳에 와서 여인을 끌어내어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애통한 나머지 죽은 아내의 시체를 열 두 토막으로 내어 각각 한 토막씩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에게 보내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베나민을 제외한 열 한 지파는 베나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하여 힘을 합했고 베나민과 나머지 열 한 지파가 서로 싸우는 동족상쟁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나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한다는 내용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삿 21:18). 결국 베나민은 힘을 잘

스승의 주일에

## 예수님을 닮으신 우리의 선생님

김성국(초등부 6학년 어린이회회장)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자랑스런 우리 교회 초등부의 6학년입니다. 선생님들께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은 있는데 스승의 주일이라는 말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준비해 드리고 하루를 쉬게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여러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선생님께 드립니다. 저도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한 분씩 생각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은 월급도 받지 않으시면서 도리어 무슨 행사때마다 준비하시느라 힘도 많이 드시면서도 오히려 우리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 주십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번 겨울 성경학교때 우리들이 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을 통독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성경구절 읽어 주셔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을 위해 매주 성경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더 유익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잘있는 지 매주 전화를 해 주시고 지난 번 어린이주일에는 선물도 사 주셨답니다.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속이 상할 때 짜증을 부리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웃는 얼굴로 제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게 되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혼자 웃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저만했을 적에 아마 또다른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겠지요. 그리고 그 분들은 또다른 선생님들께 배우시고... 어느 때인지 선생님들께 배운 것처럼 가장 큰 스승이시며 참 진리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께로 끝이 나겠지요. 그러므로 스승의 날에는 학교의 선생님들보다 우리를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교

회의 자랑스러운 선생님들께 먼저 고마운 마음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과 성경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스승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도 예수님 같은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인자하신 것 예수님께 배우셔서 닮으셨기 때문이신 것처럼 저도 커서 선생님들을 닮아 예수님같은 큰 사랑을 어린이 마음에 듬뿍 심어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 아주 많이 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말씀과 인도로 저는 더욱 더 마음이 맑아져 옳은 길로 가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친구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시

## 五月的 한가족 축제

양태영 (집사, 3교구, 소망부)

- 一. 오월의 신록은 싱그럽기도 하여라  
마음조차 하나되어 잠실벌에 이르니  
백군 천사 백 모자(白帽子)로  
청군 천사 청 모자(靑帽子)로  
입장하는 청백선수  
한가족의 기쁨이어라
- 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울려 퍼지는 찬송소리와  
간절한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몸 이룬 서울교회 축제가야
- 三. 백발(白髮) 노구신사의 선언문 낭독은  
착한 어린이, 씩씩한 소년소녀로부터  
장하고 담대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일에 정성을 바쳐 섬기라는  
격려의 모습이어라
- 四. 오색의 풍선 들고 달리는  
노숙녀(老淑女)들은  
무릎꿇고 올리는 새벽기도에  
어느 새 허리가 굽어버렸나  
세월 따라 다리가 굳어버렸네
- 五. 뒤뚱 뒤뚱 달리는 럭비공 굴리기  
기나 긴 줄넘기에 하나 둘 넘어 뛰고  
위 아래로 릴레이하는 공나르기와  
당기고 당겨가는 줄다리기도  
앞으로 달리고 뛰는 사제 릴레이는  
서울교회 한 가족의 결실이어라
- 六. 김밥에 찰밥에 부침이부터  
흰떡 팔떡 찰떡에까지  
노랑 빨강 파랑 오색 과일에  
만나(점심)시간 웃음꽃 피었네
- 七. 하늘 높이 두둥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잠깐 내려 앉아 오색만나 등에 싣고  
이북 동포 우리형제에게 갖다주려마  
하늘높이 나르는 저 독술아  
날선 부리로 38선 끊고  
통일의 기쁜 씨앗 물어오려마
- 八.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되어  
끌어 주고 밀어 주고 잡아 당기며  
눈물 바다 기도 물결 하늘에 닿아  
대치동 성전건축 이루어 질 때  
할렐루야 주님 찬송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새벽기도를 지속하기 위한 제언

### 『오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비밀』

1. 주님을 의지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지라.  
잠자리에 늦게 들면 그만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 진다. 내일을 위해 오늘 밤 무리하게 체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새벽에 잠이 깨면 즉시 일어나도록 하라.  
일단 눈이 떠지는 순간에 기도할까 말까 하는 망설이는 동안 우리 육신은 우리를 늦잠으로 몰고 갈 것이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수하라. 조금 더 자는 것보다 훨씬 상쾌한 하루가 될 것이다.

3. 질병이나 지극히 연약한 상태가 아니면 그 일을 지키도록 힘쓰라.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잦다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 아무리 어려운 일도 습관이 되어 몸에 배면 점점 쉬워진다.

“1시간 기도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 조지 물러 -

### 안수집사 · 권사 투표

6월 1일 공동의회

우리 교회는 6월 1일(주일) II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

후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 8장 54 조에 의거하여 당회가 추천한 후보를 공동의회에 내놓게 된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이다.

### 청년부 집회시간 변경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청년부 집회시간이 주일 오후 2시에서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로 변경된다. 바뀐 집회시간은 5월 24일(토)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집회시간의 변경으로 청년들이 주

일에 좀더 활발한 봉사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치동문회 제 4차 총회

한국교회갱신연구원(김치) 동문회 제 4차 총회가 지난 12일(월)과 13일(화)에 광성교회 훈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동문회 회장에 차정운 목사가 선출되었다. 부회장에 김삼은, 박정호, 박태정, 손명철, 이만호, 차명숙 목사가 총무에 김철남, 김철연 목사가 협동총무에 박귀환 목사가 각각 선출되었으며 서기에 차장호 강도사, 회계에 임홍식 전도사, 감사에 평창범 목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 어버이 주일에 소망부에서 가진 '사랑의 만남' 잔치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참가하여 연극을 공연하고 있다.



##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97 홍해작전 6월 6일에 진군 시작

올 6월6일(금)부터 25일(수)까지 20일간 실시되는 '홍해작전'이 20일 앞으로 다가 왔다. 교회는 매년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로 전개되는 '홍해작전'의 올해 주제를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로 정하고 정직·절제·사랑의 실천을 행동강령으로 내세웠다.

'홍해작전'은 그 이름에서 보듯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했을 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본을 따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현재의 모든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전교인이 새벽에 한 자리에 모여 말씀을 받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홍해작전은 '말씀과 기도의 운동'으로도 불리운다.

교회는 올해 홍해작전의 7대 기도제목으로 ① 나라와 민족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② 서울교회 부흥을 위해 ③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④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⑤ 악한 문화를 추방하고 크리스찬문화형성을 위해 ⑥ 개인신앙의 부흥을 위해 ⑦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등을 정했다.

- 주 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 주제성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합 3:2)
- 기 간: 1996년 6월 6일(목) ~ 6월 25일(수), 20일간 새벽 5 ~ 6시
- 행동강령: 정직·절제·사랑을 실천한다      ■ 새벽기도회 강사: 이종윤 목사

### ◆ 순례자 킬림 ◆

### 에통하는 자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좋은 시간이고, 행복이지 벼개를 적시도록 울어야 하는 것들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시무룩해지거나 또는 눈물만 찢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또한 애통하는 자가 적은 것도 슬퍼해야 한다. 이처럼 통회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다고 하셨다.

여기서 위로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한 자는 진정한 위로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 그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 ■ 교우동정 ■

- \* 광동회 집사(3교구 개포시영주공다락방)는 15일(목) 한남동에 '모양건축설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이신일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김증복 권사는 목회자신학세미나에 참가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번 학기에도 떡을 대접했다.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2. 김치세미나에 참가할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지도자를 위해
3.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4. 교사들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 간         |
|-------|------|-----------|
| 주일 예배 | I부   | 오전 9시     |
|       | II부  | 오전 11시    |
|       | III부 | 오후 2시     |
| 찬양 예배 | 주일   |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부   | 오전 11시    |
|       | II부  |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 오후 9시     |
| 새벽기도회 | 매일   | 새벽 5시 30분 |

### ■ 교회위치

